

## 주요 여성 정책

# 보좌

— 교육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성역할에 관한 왜곡된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노릇을 해왔고 차별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참교육의 실현과 남녀차별의식의 개혁을 위해 양성에게 평등한 교육 실시, 여성들이 원하는 직업교육 및 재교육기회 보장, 교육 주체에 대한 성평등교육 실시 등을 추진한다.

— 노동의 존엄과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가로막는 여성차별제도는 전면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취업기회, 임금, 승진 등에 있어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동일노동·동일임금, 모성보호의 제도 마련 및 복지후생시설을 확충한다.

— 가정내에서의 불평등한 관계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정착화를 저해하며 권위주의를 퍼뜨리는 온상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남성지배사회의 중요한 틀로서 작용했던 비민주적 가족법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정하고, 여성에게만 강요되어왔던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부모와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하에 이를 위한 제반 법적 제도를 제정한다. 또한 모자가족, 미혼모 등에 대하여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강화하고 임신·출산과 관련한 복지마련을 확대한다.

— 주부의 육아와 가사일은 사회의 존속과 발전에 중요한 노동으로서 그 정당한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주부일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평가, 재산권 보장 및 교육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마련을 추진한다.

— 모든 어린이는 가족의 경제적 환경에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부모훈련센터, 유아원, 탁아소, 아동센터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충분히 증설한다.

— 폭력사회의 희생자로서 많은 여성들이 구타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 피난의 집의 설치와 이에 대한 지원, 재판에서의 여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매춘, 인신매매의 금지와 처벌 그리고 매춘 여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

—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정치적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공식적 정책결정기구에의 여성참여를 보장하는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여성부를 신설한다.

“

여성들의 억압과 차별을 철폐한다는 것은 성의 평등뿐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 사회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 입니다.

”

**민주세력 단결하여 민지당독재 분쇄하자!**  
**15만 여학도 총단결로 평등사회 건설하자!**

# 보좌

서울지역 15만 여학도의 자주적 조직이며  
 여성해방의 디딤돌이 될  
 여대협의 제4기 발족을 축하합니다.



가자 딸들아  
 흙먼지 쓰고  
 물이랑을 차며  
 그네 놀던 그 발길로  
 당그레 잡던 그 손길로  
 님 맞으러  
 어이 가자  
 거짓 선진을 이기고  
 정의의 뱃진에 서서  
 민족해방 이성해방의  
 긴 쌍나팔을 불자.

**민중의 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원회 여성위원회**  
 전화 : 338 - 3161, ~4

# 승리의 깃발이 되자 여대협이여! 서울지역 15만 여학도의 자랑스런 투쟁의 깃발

이 땅의 여성들은 사회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채 순종을 미덕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봉건적 관습과 성차별의 관행, 인신매매의 위협, 모성의 파괴 등 온갖 차별과 억압의 굴레에서 수동성과 의존성만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전체 변혁운동의 발전과 함께 여성들의 자주적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국피코와 신에전자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텍스텍 위장폐업 철회운동,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가족법 개정운동 등 자주적 권리획득과 평등한 삶을 위한 운동의 대열에 여성들이 당당한 주체로 참여하면서 여성운동은 이제 이땅의 변혁운동으로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대중투쟁의 진전에 발맞추어 87년 9월 서울지역 15만 여대생들의 자주적 권리를 공고한 연대투쟁으로 획득하고자 출범했던 여대협이 꾸준한 발전속에 오늘 그 출범 제4기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84년 톱보이 티버드 불매운동에서부터 시작된 여학생운동이 부천서 성고문 폭로사건, 이경현 양 방패살인 규탄투쟁, 성고문협박 프락치 강요 안기부 항의방문, 취업차별 철폐투쟁 등을 거치면서 청년학생운동의 대중화와 여성운동의 전투화에 아주 큰 기여를 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동지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대협은 서울지역 15만 여학도들에게 '우리조직'으로 인식되어 있지 못하고, 또한 여학생운동이 전체 여성운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대협 제4기 발족식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여대협이 여성운동의 선봉대로서의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굳건히 다져나가기 위한 결의의 자리이자, 시보임을 믿습니다.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저희 '민연추 여성위원회'는 그러한 여대협 동지 여러분의 노력에 힘찬 격려를 보냅니다. '민연추 여성위원회'는 현재 여성정책을 교육, 노동, 평등한 가정과 어머니보호, 주부의 권리, 어린이보호,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상품화 금지, 정치, 문화 등으로 나누어 연구중에 있으며, 앞으로 올해 여성운동의 과제인 탁아입법 쟁취와 취업차별철폐, 그리고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지원에 '민연추 여성위'와 여대협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0년 새해 벽두에 자행된 반민주적 밀실야합 민자당 정권은 금융실명제 유보와 토지 공개념 후퇴 등으로 민주개혁조치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전세값폭등, 물가양등, 증시폭락 등의 제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민중의 생존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자당 정권의 민족민주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은 우리 여성들에게도 어김없이 다가와 그동안 우리 여성들이 투쟁으로써 쟁취한 모성보호조항을 노동법 개악음모를 통해 후퇴시키려하고 있으며, 여성노동자들이 대부분인 외국기업 사업장의 외자철수 철회투쟁을 오히려 공권력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의 자주적 요구 또한 노태우 정권의 반민주적·반민중적·반민족적 탄압에 맞서 싸우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서울지역 15만 여학도 여러분!

KBS 사원들의 방송자주화 투쟁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자비한 탄압으로 짓밟은 노태우 정권은 이제 더 이상 민주화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이제 우리 여학도들도 투쟁의 대열로 떨쳐 일어나 반민자당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고, 그속에서 여성의 사회적 해방과 남녀평등을 실현시켜 나갑시다! 여대협 동지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투쟁과 발전에 전투를 빕니다.

1990년 5월 11일

## 민연추의 주요 여성정책기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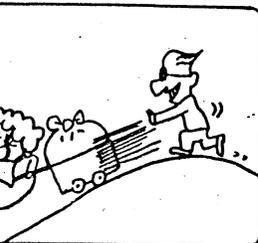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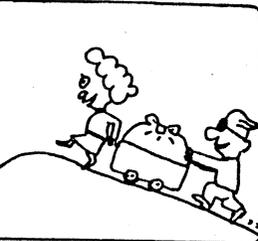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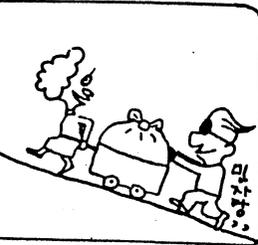
민연추 10대 강령중 제7항은 "사회 전영역에서의 성차별을 철폐하여 남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실현한다. 이를 위해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를 추진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존의 남성중심의 사회구조는 여성들을 정치는 물론이거니와 경제, 문화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소외시켜왔고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차별을 유지시켜왔습니다. 이는 독점자본이 끊임없이 자신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민중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짓밟고, 노동자·농민·도시서민 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있으면서 진보적인 세 세력의 결집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겪고 있는 억압과 차별을 철폐한다는 것은 성의 평등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계급적, 계층적 갈등 해소 등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 중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에, 민연추는 당면 주요 여성정책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보다 광범위한 대중토론회 등의 여론수렴과정을 통하여 확정하고자 합니다.

## 3월 14일

여성정치참여



“

여성들의 자주적 요구 또한 노태우 정권의 반민주적·반민중적·반민족적 탄압에 맞서 싸우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

올해 여성운동의 과제인 탁아입법쟁취와 취업차별철폐, 그리고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지원에 민연추여성위와 여대협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